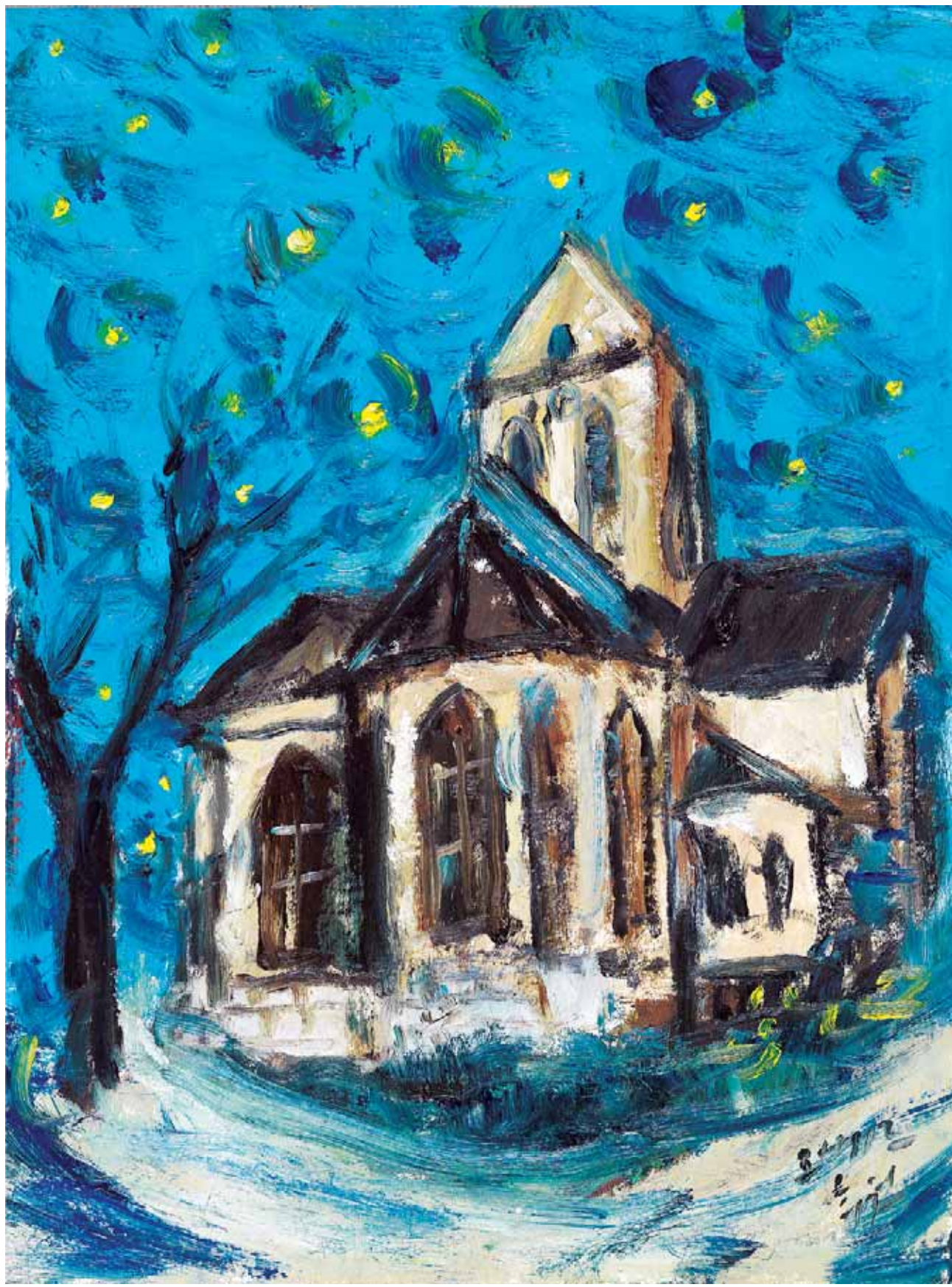


예술적인 삶이 별 거 있나...시로, 철학으로 생을 위로하세



〈5〉 파리-한희원



빈센트 반 고흐가 생의 마지막 70일을 보낸 오베르 쉬르우아즈에서 그린 '오베르 교회와 별'.

J, 실제로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가슴 뛰는 곳은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 생의 70일간을 보낸 오베르 쉬르우아즈였습니다. 고흐가 아를르를 떠난 1889년 5월부터 1890년 7월까지 1년 2개월 중 1년은 생 레미 정신병원에서 그리고 마지막 두 달간은 오베르에서 보내게 됩니다. 생 레미 정신병원에서 고흐는 1년간 150점의 유화를 완성합니다. 이틀에 한 점씩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같은 화가로서 보면 미친 듯이 그림에 취해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고흐는 절망의 끝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생이 기다리는 출도 모르고 고흐는 생 레미 정신병원을 나와 오베르로 향합니다. 고흐가 오베르역에서 내린 날도 오늘처럼 햇빛 안개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몰려왔을까요. 오베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 괴팍한 화가를 반가이 맞아 줄리 만무하였을 것입니다.

오베르에서 고흐가 그린 풍경들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들녘이나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길은 얼마나 처연하던지요. 고흐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오베르역 건너편의 이집집에 오르는 순간 내 영혼 속에서 불꽃이 튀는 먹먹함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둑고 낡은 계단을 오르면 겨우 한 사람이나 몸을 누일만한 좁은 방에 목조자와 침대 하나가 그림자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에게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고흐의 별이 순간 반짝거렸습니다. 고흐의 집을 나와 찾아가는 오베르 교회는 짙은 갈색의 몸짓으로 언덕길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로 가는 언덕길을 고흐와 걷고 싶었습니다. 오베르 교회를 지나 찾은 마을 뒤편의 끝없는 밀밭 길은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바람에 못 이겨 밀밭 길을 덮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잊고 고흐가 되어 비에 젖은 밀밭 길을 걸었습니다. 오베르를 오기 직전에 걸었던 모네의 마을 지베르니의 꿈같은 꽃들이 이곳에서는 찾기도 어려웠지만 고흐가 사랑하는 동생 테오와 함께 몸을 누인 가장 낮은 무덤가에는 누군가가 던져준 붉은 장미가 비에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J, 파리를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싣고 고흐에게 오는 날 하얀 찰레꽃도 붉게 명들어 피어있었습니다. 먼데서 고흐의 총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탕!



◀ '모네-지베르니의 붉은 벽돌집'

석조가 이리 부드러움을 알게 해요
굳이 내내 비에 젖어 있지 않아도
파리에 오면
천년을 견디어온 석조의 단단함이
여인의 부드러운 피부처럼 나른해요

오래된 돌들이 비에 젖어
퇴락한 베이지로 물들어 가요.
검은 줄기의 나무사이로
고흐의 별이 쉬고
모딜리아니가 각혈을 해요.

사갈의 언덕에서 뻐아프가 노래를 합니다.
파리는 사랑에 젖고
늙은 와인에 취하고

-한희원 시 '파리'-



▶ '오베르-까마귀가 나는 밀밭 길'



한희원

-조선대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33회, 뉴욕 아트 엑스포, 이스탄불 이르크 미술관 기획전, 파리 유네스코 세계본부 기획전 등 단체전 참여
-대중 미술상,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 원진미술상 등 수상
-신경림 시인(처음처럼), 곽재구 시인(낙타몰의 사랑), 임의진 목사(참꽃피는 마을) 등에 그림삽화 및 영화 '친정엄마' 테마그림
-남구 굿모닝 양림축제 조직위원장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전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